

# “아이들 희망 없다면 그 고민은 우리 몫”

### 무등산 중심사 대원장학회 저소득 청소년에 '선재의 선물' 전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을 담아 '선재의 선물'을 드립니다.” 무등산 중심사에서 운영하는 대원장학회(이사장 지장, 중심사 주지)가 광주 동구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재의 선물'을 유태명 동구청장에게 12월 9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500만원 상당의 선물은 영양제 모자장갑 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1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선재의 선물'은 소외된 우리 아이들이 선재 동지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선재동자는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젊은 구도자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선재는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 선재 동

자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중심사에서 3년간 진행하고 있는 '무등에서 길을 묻다- 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1차 회향을 맞이해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초청법회(이사회장 지장, 중심사 주지)가 광주 동구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재의 선물'을 유태명 동구청장에게 12월 9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500만원 상당의 선물은 영양제 모자장갑 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1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겨울은 경제적 소외계층이 느끼는 박탈감이 더욱 큰 것 같다. 선재의 선물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이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면, 그 고민들은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대원장학회가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작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왼쪽)에게 중심사 주지 지장 스님이 '선재의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

한편, 중심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 대원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대원장학회는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6월에는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한민족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한 고구려 유적탐방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원 장학회는 또 2009년부터 광주 불교계의 장학 사업을 이끌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더불어 함께 살아감이 행복의 길잡이

### '익산불교의 밤' 봉행

신묘년 한해 동안 익산지역 불교활동을 마감하고 임진년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는 '익산 불교의 밤' 행사가 12월 11일 익산 연리지웨딩컨벤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준근)가 주최하고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송립사 주지) 후원으로 열렸다.



'익산 불교의 밤'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 신도국장 범상 스님과 지역 사암의 스님들 및 임회웅 중앙포교사단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박종대 익산시의회 의장과 불자 8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일년 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지역불자들을 위로하고 내년에도 익산불교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익산 사암연합회 지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사회는 심성과 신체의 자질이 저하되고 무책임적인 사고와 무의식적 행위 등으로 귀중한 생명이 천사되고 물질만능주의와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이다”며 “익산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진실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성의 밝은 본성이 드러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행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행에 최선을 다한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을 익산에 모셔올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온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범어를 통해 “바른 안목 속에서 정견을 통한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지혜와 행복의 길잡이다”고 전제하고 “21세기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역, 종교, 계층을 넘어 모두가 소통하며 긍정적인 사고 속에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 동참한 불자들의 향기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생명나눔은 숭고한 불교사상 실천”

###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사상신행단체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12월 10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행사에는 본부장 현지 스님과 흥봉사 주지 상운 스님, 금선사 주지 일명 스님,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관음암 주지 인성 스님 등 임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광주생명나눔은 1년간 활동을 해 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헌



혈증서 5000매에 대한 전달식을 마쳤다.

이날 시상식에서 공로패는 주권기 흥보 이사와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수여됐고, 감사패는 박주정 광주시교육청 장학관, 공로상은 김명선 주권기 팬카페, 감사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게 각각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교스카우트 범어 수효단 창단

제14교구 본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가 12월 10일 설립전에서 불교스카우트 범어수효 지역단을 창단했다.

이날 행사에서 단위원장에 교무국장 범귀 스님과 단대장에 금정중학교 이석연 법사와 정진완, 여보선, 한재룡 대장의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발대식에서 학생대원 30명은 활동을 서약하는 선서식과 함께 불전에서 정화한 12가지 스카우트 규율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육성단체장 정여 스님은 “화랑도 수련 활동과 유사한 스카우트활동을 통해 밝고 희망찬 젊은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세계 청소년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스카우트에서 불교인생을 만드는 데 범어 수효단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린이회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단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 다시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 보내는지요?

눈과 귀를 열어보면 세상은 백설기를 감방 썰 놓은 김 서린 모습처럼 맑고 깨끗해 눈부시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만들어 놓은 작은 오솔길이 이렇게 큰 길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처음 내딛던 한발이 못내 서툴러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였고 엉덩이에 빠져 신발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가시밭길 같은 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멈추고 싶은 강한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사슴처럼 깊고 순한 눈망울들이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부끄러워 다잡아 온 길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더 힘들고 어렵고 함께 해야 할 동행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배란다를 힐끗 올려다봅니다. 슬픈척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반가운 손동작과 환한 미소가 먼저 들어옵니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시는 우리의 어른들이십니다. 하루가 생애하고 기분 좋아서 앤드르핀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속의 짐승들도 사람의 마음으로 조부하게 작은 길을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데 하물며 우리네 사람들이야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내 손길이 필요한 이를 위해 나서는 일이 결코 쉽게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내기가 어찌면 죽은 만큼 힘든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

정을 내린 후에는 꿈과 희망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작은 길이 보푸라기 같이 가늘고 모양새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훗날 희망의 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큰 길을 놓기 위해서는 희망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어야 든든한 꿈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과 자비의 꽃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참 서툽니다. 아산의 이름 모를 작은 들꽃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달려며 다잡고 연민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산길의 작은 들꽃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멀리 보며 느릿느릿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예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죽을 때까지 애민할 수 하셨듯 부다께서 파놓은 중생사랑의 그 조붓한 길을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면서 더 큰 길을 내어서 부처님 닮아가는 길을 해야 합니다.

맑고 순수한 사람은 물처럼 바람처럼 낮은 곳을 선택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계곡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끝내는 다시 우리 곁이 듯 이 순간에도 저마다 맑은바소임에 충실하야 합니다.

우리의 결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눈망울 선한 미래의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가고 새로운 임진년 봄이 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먼 길 가지 말고 주먹밥이라도 준 비해서 썩고 냉이를 캐러 갔으면 합니다. 맑고 밝은 웃음을 동반해

서.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중회의원)



## 아름다운 해조음, 부산전국불교합창제 개최

제3회 부산전국불교합창제가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윤순) 주최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12월 7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 목포·진도 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해 대전·충남, 충북, 경남 한마음선원,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주, 부산불교 합창단원들이 참

가해 아름다운 불교 합창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김윤순 회장은 대회사에서 “부처님께 귀의한 모든 분들이 금정문화회관에서 띄우는 해조음을 듣고 용기 충전하시어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시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33세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성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  
특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서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